

# 萬海 韓龍雲의 文體推移

—中間文體의 設定과 그 區分에 關聯하여—

沈 在 箕\*

1.1. 이 글에서 필자는 萬海 韓龍雲의 文體를 年代記의 順次를 따라 檢討하려고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萬海 韓龍雲은 19世紀 末葉에 태어나서 20世紀 中葉(1879~1944)에 作故한 禪僧이요, 抗日獨立鬪士요, 또한 詩人이었다. 그가 韓國의 佛敎思想, 政治 및 文學에 끼친 業績은 語通한 史筆로서는 도저히 近接조차 어려울 만큼 浩瀚한 것이거니와, 이러한 그의 業績은 理路整然한 그의 著作에 流漏없이 收錄되어 있다. 그러나 本稿는 그의 著作의 內容에 대해서는 關心을 두지 않고, 다만 그의 文章을 文體論의 觀點에서 1910年代의 10年間을 集中的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필자가 특별히 萬海의 文章에 文體論의 照明을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는 그의 文筆生活이 1910年代에서 1940年代의 解放直前까지이므로 거의 日帝植民期間에 對應한다는 事實이다. 이 期間은 文化史의 觀點에서 보면 前近代의 樣相이 近代化한 過渡期에 해당한다.

둘째는 우리 韓國語 文章이 日帝植民 期間을 通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文體로 變貌하였다는 事實이다. 1910年代를 前後하여서는 朝鮮王朝末期의 殘在的인 文筆慣習으로 純漢文이 쓰였는가하면 開化意識의 所産인 國漢文混用의 文體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1920年代以來로 言文一致의 欲求가 急激히 팽창하므로써 國語文章은 보다 現實的인 口語의 文字化로 변한다. 이렇듯 比較的인 短期間에 急激한 文體上의 變化가 招來한 것은 純漢文의 構造가 言文一致를 反映하는 國文構造와는 本質的으로 너무나 큰 差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文體上의 隔差를 우리는 萬海 一個人의 文

\* 人文大 副教授(國語學專攻)

章에서 두루 接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두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1910年代에서 1940年代까지를 代表하는 當代 知識人의 典型으로 萬海를 취급할 수 있는 根據를 발견한다. 이것은 동시에 한 人物의 持續的인 文筆을 추적함으로써 한 時代의 文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利點을 提供해 준다. 勿論 이러한 利點이 客觀性 내지 普遍性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萬海文體 以外的 文體를 檢討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萬海의 文章을 하나의 始發點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1.2. 文體는 흔히 다음과 같은 세가지 部類로 區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相對的으로 永續的 特性을 지니는 文體로서 特定한 個人의 文體, 特定한 地域의 方言 및 特定한 時代의 言語이며 둘째는 談話의 樣式에 關係되는 넓은 意味의 文體로서 口語나 文語나하는 談話形式 및 獨白이나 對話나 演說이나하는 參與者의 構成에 따르는 것이며 셋째는 相對的으로 當時代的 特性을 反映하는 文體로서 專門分野, 社會의 身分 등을 反映하는 文體이다. 便宜上 以上과 같은 세가지 接近方法을 想定할 때 本稿는 그 첫번째 部類 즉 相對的으로 永續的 特性을 지니는 時代的 文體의 特性을 萬海의 文章을 通하여 檢討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萬海의 文章이 同時代의 다른 作家들의 文章과 어떻게 差異지느냐 하는 데보다는 그들의 共通的인 文體要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데에 力點을 둔다.

勿論 萬海라는 特定人의 文體를 檢討한다는 점에서 다음 두가지는 前提條件으로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

가) 萬海는 忠南 洪城出身이므로 그의 文體는 必然的으로 忠清道方言을 土臺로 한다. 그러나 이 方言의 問題는 漢文과 緊密하게 關聯된 文體에서는 거의 考慮의 要素가 되지 않는다.

나) 萬海文體의 談話樣式은 著作物로 나타난 文語이며 參與者의 構成은 萬海가 讀者大衆을 相對로 하는 對話 내지 講說的 狀況下에서 쓰여진 것이 大部分이다. 이 講說的 狀況이야말로 萬海文體의 基本性格이므로 보다 綿密히 檢討되어야 한다. 이 問題는 萬海의 著作이 어떤 動機에서 生成되었느냐 하는 것과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萬海는 朝鮮佛敎維新論(1910)으로부터 晩年の 小説에 이르기까지 실로 여러 分野의 글을 執筆하였다. 그런데 그의 글의 大部分은 그가 살아온 人生의 行蹟이 나타내 주는 바와 같이 大乘禪師로서 항상 一般大衆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어야겠다는 傳達文의 性格을 띠고 있다. 남에게 읽힐 것을 거의 意識하지 않고 쓴 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漢詩篇들일 것이다. 이러한 漢詩는 談話形式에 있어서 作者自身이 讀者가 되는 이른바 獨白의 形式에 속하는 것으로 萬海의 경우에는 그의 다른 著作物에 비해 그렇게 重要的 比重을 갖지도 않을 뿐아니라 分量으로서도 많은 것은 아니다.

2.1. 萬海의 著作을 類別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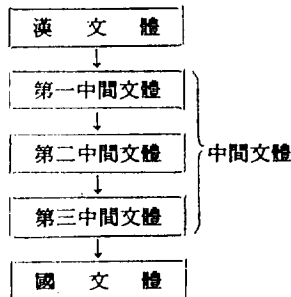
- |        |       |                                    |
|--------|-------|------------------------------------|
| I. 編譯  | 1. 編纂 | a. 經典：佛敎大典(1914)                   |
|        |       | b. 史蹟：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1928)            |
|        | 2. 譯註 | c. 講義：精選講義榮根譚(1917) 維摩詰所說經講義(1933) |
|        |       | d. 註解：十玄談注解(1926)                  |
| II. 創作 | 3. 論說 | e. 長論：朝鮮佛敎維新論(1910) 朝鮮獨立의 書(1919)  |
|        |       | f. 短論：「惟心」「佛敎」誌 등의 論說              |
|        | 4. 文藝 | g. 詩：漢詩, 님의 沈默(1926)               |
|        |       | h. 小説：黑風(1935), 薄命(1938) 등         |

萬海의 全著作은 우선 두 개의 큰 部類로 가를 수 있다. 즉 第一群은 編譯이고, 第二群은 創作이다. 編譯의 原文이 漢文에 由來하고 創作은 처음부터 國文에 基礎하리라는 것은 쉽게 區別될 수 있다. 그러나 史蹟은 그 基本資料가 漢文이기는 하지만 漢文으로 執筆한 것은 아니며 詩에서 漢詩는 역시 創作임에도 不拘하고 漢文이라는 例外性을 지닌다. 결국 a에서 h까지 여덟개의 장르가 編譯과 創作이라는 큰 部類로 묶임에 있어서 우리의 關心을 끄는 問題는 漢文과 國文과의 對決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甲午更張以來 純漢文이 一般大衆을 爲한 啓蒙性을 띤 文章으로 適合하지 않았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常識의 問題이다. 더구나 1886年대에 이미 漢城周報가 國漢文混用을 시작하였고 그후 鄭乘夏의 農政撮要(1886) 俞吉濤의 西遊見聞(1889)이 刊行됨에 이르러 國漢文混用의 傳統은 確固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甲午更張以後의 國漢文混用은 하나의 普遍的 現象이었다.

2.2. 우리의 論議는 바로 이 "國漢文混用"이라고 하는 지극히 包括的인

用語에서 시작된다. 아마도 이 用語는 國文도 있고 漢文도 있는 文章이라는 뜻으로 慣用되어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國文과 漢文의 文章構造가 統辭論의으로 너무나 異質의인 것이고, 또 실제 文章에서 國文의 要素와 漢文의 要素가 어느 程度의 比率로 構成되었는지를 細分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國漢文混用體라는 包括的인 用語는 再檢討해야 할 것이다. 峻別이 뚜렷한 文體로는 國文體와 漢文體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두 文體는 嚴格한 意味에서 서로 다른 言語를 代表하고 있다. 따라서 所謂 國漢文混用體는 하나의 言語에서 다른 言語로 넘어가는 매우 流動的인 中間文體로 存在한다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國漢文混用體라는 漠然한 用語 대신에 一旦 中間文體라는 用語속에 모든 國文體와 漢文體의 混用文體를 包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根源的인 물음을 提起해 본다. 中間文體의 出現은 무엇 때문이였는가? 이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이 中國語의 上古文語를 反映하는 漢文體를 어떻게 國文體로 置換하느냐하는 데에 目的을 두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漢文을 國文으로 翻譯하려는 것이 그 最後의 目的이었다. 그렇다면 從來의 國漢文混用體는 漢文이 國文으로 翻譯되는 中間過程의 어느 段階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 우리는 여러 段階의 中間文體를 想定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方法은 中間文體를 우선 三分하는 것이다. 그것을 暫定的으로 다음과 같이 命名하기로 하자.



第一中間文體는 漢文의 統辭的 特性을 다른 中間文體보다는 많이 保有하고 있어서 漢文體에 가장 가깝게 接近되어 있는 것이고 第三中間文體는 漢文의 統辭的 特性을 거의 다 벗어나서 國文體에 보다 가깝게 다가온 것이라

고 假定할 수 있다. 第二中間文體는 漢文과 國文의 要素가 半씩 混合되어 있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過去 우리나라의 文化가 中國文化圈 안에서 論議되던 時代에 中國文化의 理解와 普及이 全的으로 中間文體에 依存되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第一中間文體에는 漢文의 統辭的 構造를 훼손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國文의 統辭的 機能語를 挿入한 口訣吐 文體를 聯想하게 된다. 그러면 第二中間文體는 漢文의 統辭的 構造가 무너진 段階라고 假想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部分的으로는 漢文의 統辭構造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第三中間文體에 이르면 漢文의 統辭的 構造는 간간히 殘影을 드러내는 程度에 그치고 거의 國文體로 醇化되어 나타날 것이다.

3.1. 이제 萬海의 文章으로 돌아와 보자. 萬海가 세상에 公表한 最初의 글은 그가 1910年 12月 8日에 脫稿하고 1913年 5月 25日에 刊行한 「朝鮮佛教維新論」이다. 이 글은 序를 虛頭로 하고 緒論과 結論사이에 15個章으로 나뉜 佛教改革論이 開陳되어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序는 純漢文으로 쓰여 있고 나머지는 全部 口訣吐를 붙이고 있다. 다만 十二章에 해당하는 '論佛教之前道가 關於僧尼嫁娶與否者'의 末尾에 '中樞院獻議書'와 '統監府建白書'가 序와 마찬가지로 口訣吐없이 純漢文으로 添附되어 있어 例外的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萬海의 文體를 追跡하는 데 대단히 重要的 意味를 지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미 甲午更張以來 세차게 불어닥친 開化意識이 이른바 國漢文混用을 상당히 一般化시키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1910年 國恥를 前後한 時期에 萬海는 아직도 文章의 典型은 漢文에 한글이 섞여서는 아니된다는 매우 古典的인 意識을 아직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萬海의 文章은 當代的 前近代의인 다른 知識人들과 마찬가지로 "文章은 곧 漢文"이라는 前提에서 出發한다고 推論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佛教維新論」이 內容에 있어서 改革을 부르짖는 것이었기 때문에 本文이 結果的으로 漢文에서의 逸脫을 無意識的으로 反映하게 되었다는 것도 또한 看過할 수 없다. 이 意識이 佛教維新論의 本文에 口訣吐를 한글로 붙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그 諸論의 一節을 옮겨 본다.

「天下에 豈有成敗리요, 待人而已라. 悠悠萬事가 無一非聽命於人而後에 有所謂成 所謂敗者하니 苟事而無自立之力하고 惟人是從이면 事之有成敗 | 亦人之責任而已로 다.」

이 文章은 口訣吐를 除外한다면 完美한 純漢文이 된다. 이 吐는 종래 經書類에 붙였던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들이다. 이미 死語化한 主格吐 “|”(탄이)가 붙은 것은 이 文章의 古典味를 더욱 돋보이게까지 한다.

萬一 이러한 文體를 앞에 言及한 第一中間文體라 한다면 이 第一中間文體는 漢文에 口訣이라는 機能語를 添加하여 國語構造를 投影시킴으로써 한걸음 國文體에 接近하기는 했으나 漢文의 處地에서 보면 不必要한 國語要素가 덧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漢文은 매우 制限된 機能語들을 除外하면 文章의 意味를 構成하는 單語들이 主로 語順에 의해 統辭的 機能을 遂行함으로써 文章을 形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國文體로 轉換하려는 처음 段階에서 國語의 機能語를 附加的으로 受容하는 것은 必然的인 過程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萬海의 이러한 口訣附 第一中間文體는 얼마나 持讀되는가? 이미 萬海에게서 싹트고 있었던 改革思想은 그러한 前近代의 舊習의 口訣附 文體에 萬海를 오래 머무르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萬海는 이 佛敎維新論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여 漢文의 原型을 維持하는 口訣附 中間文體로부터 곧 벗어나게 된다.

3.2. 萬海가 두번째로 세상에 내놓은 著述은 1914년에 刊行한 佛敎大典이다. 엄격한 意味에서 그의 創作은 아니나, 그의 文體變化를 檢討하는 觀點에서보면 매우 重要的한 位置를 차지한다. 그 龍大한 分量에 비추어 朝鮮佛敎維新論을 執筆한 直後부터 着手하였다고 假定할 경우 이 大典은 고작 三年以內의 期間으로 編纂된 것이므로 萬海의 烈火와 같은 精誠과 勞力을 짐작할 수 있다. 이 大典이 佛敎維新論의 執筆 以後에 着手되었으리라 하는 推定은 그 文體가 維新論이 나타나는 第一中間文體를 벗어났다는 事實에 根據한다. 이 大典의 凡例에 따르면 1項에 ‘本典은 衆生의 智德을 啓發하기 위하여 絶世聖人 釋迦世尊의 所說經律과 各菩薩의 所造論文을 抄錄類聚하여 編成함’ 이라고 하여 大典 刊行의 目的과 收錄經典의 範圍를 밝히고 있고 5項에는

‘一般人的 易解 普及을 爲하여 鮮漢文으로 間譯함’이라는 表現을 써서 文體 選擇에 關한 萬海의 意思를 밝히고 있다. 이 凡例 5項의 間譯이란 用語는 깊은 注意를 要한다. 앞에서 論議된 第一中間文體와 같은 것을 直譯이라고 본다면, 이 間譯은 그것보다 더욱 國語化하였다는 意味로 그 文體上의 位置가 比定되기 때문이다. 그 間譯의 實相을 佛敎大典의 原文을 通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第一序品 如來藏經의 一節이다.

“佛이 言하시되 善男子야 譬컨대 貧家에 珍寶가 有하되 寶가 能히 내가 此가 在하다 自言치 못하는지라, 既自知치 못하고 또 語者가 無하면 能히 此寶藏을 開發치 못하느니 一切衆生도 亦復如是하여 如來大法寶藏이 其 身內에 在하되 不聞不知하고 五欲에 耽惑하여 生死에 輪轉하여 受苦無量이라. 是故로 諸佛이 世에 出興하시어 衆生身內에 如來藏이 有함을 觀하시고 諸菩薩을 위하시어 此法을 說하시니라.”

이 文體는 한글로 쓰여진 部分이 종래 口訣의 範圍를 넘어서서 보다 많이 國語로 바뀌고 있음이 指摘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 全文章이 基本的으로 國語의 統辭의 構造를 나타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漢文으로 復歸할 수 있는 性向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文章에서 한글로 쓰인 部分을 削除하고 漢字를 漢文의 統辭의 構造로 再排列하면 部分的인 欠落이 있으나 相當部分이 漢文의 原文에 類似하게 復原된다는 事實을 뜻한다. 우리는 이러한 文章을 第二中間文體에 소속시키고자 한다.

이 第二中間文體에 속하는 萬海의 다른 著述에 精選講義榮根譚을 손꼽을 수 있다. 이 講義榮根譚은 佛敎大典이 刊行된지 3年後인 1917年 4월에 刊行된 萬海의 세번째 冊이다. 佛敎大典과의 年代의 相近은 文體의 一貫性을 보이는 重要한 理由의 하나일 것이다. 그 序가 純漢文으로 쓰인 까닭은 原典이 中國 傳來의 傳統的 修養書일 뿐만아니라, 萬海 自身이 完全한 國語의 統辭의 構造에 토대를 두고 글을 써야겠다는 明白한 意識을 確立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本文은 原文一讀一講의 三段階로 構成되었는데 讀과 講은 佛敎大典과 마찬가지로의 第二中間文體의 樣相을 보인다. 修省章의 첫 部分을 摘記한다.

“〈原文〉 欲做精金美玉的人品, 定從烈火中煨來. 思立掀天揭地的事功, 須向薄水上履過

〈讀〉精金美玉의 人品을 倣코자 하면 定히 烈火의 中으로 從하여 煨來할지요. 天을 撼하고 地를 撼하는 的의 事功을 立함을 思하면 모름지기 薄氷의 上을 向하여 履過할지니라.

〈講〉精金美玉은 烈火의 中에 滿度의 煨煉을 受하고 琢磨의 功을 加한 後에야 一點의 瑕疵가 無히 優美한 寶器를 成하느니, 人品을 成함도 如是하여 金玉과 如히 剛明精美한 品格을 倣코자 하면 반드시 烈火와 如히 困難危險한 逆境의 中에서 其 精神을 煨煉하고 志氣를 淨羸하여 怯懦鹿浮한 情塵을 解脫할지니 故로 千秋의 忠烈과 萬古의 節義는 白刃을 陷하고 熱血을 孤苦危險한 中에서 出하고 曠世의 英雄과 絶代의 豪傑은 十生九死 萬敗一成的 困難을 經한 後에 得하는지라. (後略)”

위의 例文에서 「讀」과 「講」은 똑같은 第二中間文體의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讀」은 原文에 依據한 變形이고 「講」은 萬海自身の 評說에 따른 文體일 뿐이다.

이와같이 萬海의 文體는 漢文으로부터 時代를 따라 漸進的인 變貌를 거듭한다.

3.3. 「精選講義菜根譚」이후로 萬海의 文筆은 1918年 9월에 萬海가 創出한 雜誌「惟心」에 쓰인 여러가지 글에 이어진다. 여기에 이르면 萬海는 그의 思想과 理念뿐만아니라 그것을 實踐하려는 著述과 行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完全히 渾然一體가 되는 爛熟한 活動期에 접어든다. 따라서 그의 文體는 當代의 다른 啓蒙의 先覺者들이 추구했던 어떤 文章보다도 쉬운 것으로 탈바꿈한다. 결국 그 文體는 當時 大衆들의 口語에 거의 一致되리만큼 가깝게 接近한 文體가 된다. 「惟心」一號의 卷頭言을 읽어보기로 하자.

“처음에 봄

배를 띄우는 흐름은 그 근원이 멀도다. 송이 큰 꽃나무는 그 뿌리가 깊도다. 가  
벼이 날리는 떨어진 잎새야, 가을 바람의 군침이다. 서리아래에 푸르다고 구태어  
묻지마라. 그 대(竹)의 가운데는 무슨 걸림도 없느니라. 미(美)의 음(音)보다도 묘  
한 소리 거친 물결에 돛대가 낀다.

보느냐, 셋별같은 너의 눈으로 천만의 장애를 타파하고 대양에 도착하는 득의의  
파(波)를.

보이리라, 우주의 신비. 둘러리라, 만유의 묘음(妙音). 가자 가자, 사막도 아닌  
빙해(氷海)도 아닌 우리의 고원(故園). 아니가면 뒤라서 보라, 한 송이 두 송이 피  
는 매화.”

이 글에서 ‘美의 音, 得意의 波’ 정도를 除外한다면, 이 글은 1930年代나



40年代의 文章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完美한 國文體라 하여도 좋을 듯하다. 萬海가 앞으로 어떤 文體를 자기 글의 本領으로 삼을 것인지를 이 卷頭言에서 충분히 豫見케 한다. 「惟心」誌에 發表된 짧막한 論說文들 즉 「朝鮮青年과 修養」 「前路를 擇하여 進하라」 「苦痛과 快樂」 「苦學生」(以上一號) 「魔는 自造物이다」(二號) 「自我를 解說하라」 「遷延의 害」 「毀譽」・「無用的 勞心」(以上三號) 등도 極히 部分的인 漢文語句와 連結語尾 및 終結語尾를 除外하면 역시 보다 後代의 國文體와 逼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萬海는 아직 中間文體로부터 完全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 代表的인 例가 1919年 三一運動以後에 獄中에서 日帝當局者에게 提出하기 위하여 執筆하였다는 「朝鮮獨立의 書」(一名 朝鮮獨立理由書)이다. 그 첫 部分을 引用해 보자.

“自由는 萬有의 生命이요, 平和는 人生의 幸福이라, 故로 自由가 無한 人은 死骸와 同하고 平和가 無한 者는 最苦痛의 者라 壓迫을 被하는 者의 周圍의 空氣는 墳墓로 化하고 爭奪을 事하는 者의 境涯는 地獄이 되느니 宇宙의 理想的 最幸福의 實在는 自由와 平和라 故로 自由를 得하기 爲하여는 生命을 鴻毛視하고 平和를 保하기 爲하여는 犧牲을 甘始當하느니 此는 人生의 權利인 同時에 또한 義務일지로다.”

이 글은 一見하여 過密한 漢字의 羅列때문에 漢文에 吐를 붙인 第一中間文體가 아닌가하는 錯覺을 하게 한다. 그러나 統辭的 構造는 完全한 國語文章에 根據하고 있으며 이들 漢字語를 한글 吐 없이 再排列하였을 때에 傳統的 漢文으로 復歸하기에는 不可能하리라는 印象도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第二中間文體에서 보이는 漢文으로의 復歸性向을 거의 喪失하였음을 나타낸다. 위에 引用된 部分에서 그 證據를 찾는다면 마지막 句節의 “同時(에)”를 指摘할 수 있다. 萬一 이 文章이 漢文으로 復歸性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同時”는 「且, 亦, 又」 등을 쓰게 되고 ‘此는 人生의 權利요 且 義務로다’와 같은 表現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이 「朝鮮獨立의 書」는 第二中間文體와 相對的인 觀點에서 第三中間文體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萬海는 왜 1918년에 이미 純粹하고 柔軟한 國文體를 사용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文體의 推移過程으로보면 오히려 逆行的인 第三中間文體를 「朝

鮮獨立의 書]에서 쓰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萬海는 그 글의 讀者가 日帝當局이라는 것을 意識하고 보다 復古的인 文體를 擇함으로써 壯重하고 威嚴에 찬 雰圍氣를 나타내려고 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萬海의 文體를 전체적으로 鳥瞰하면 1910年「朝鮮佛教維新論」을 執筆한 以來 약 10年間 漢文體로부터 段階的으로 第一, 第二, 第三의 中間文體를 거쳐 國文體에 安着하고 있다.

4.0. 以上으로 萬海의 1910年代 著述을 時期順으로 追跡하면서 漢文體에서 國文體로 變貌하는 中間過程의 세가지 文體特質을 檢討하였다. 여기에서 筆者는 口訣附, 漢文復歸性向의 強弱 즉 漢文으로의 復歸可能性 및 不可能性을 各各 中間文體의 特質로 規定하였다. 이 때에 萬海의 文體가 좋은 例證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筆者의 見解를 보다 確固히 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더 많은 例證에 依한 精巧化作業이 期待되고 있다.